

광주·전남 10여 곳 부당업체 적발... 공공공사 입찰 참여 못해

벼랑끝 건설사 “가처분 등 공동대응”

K, N, S사 등 광주·전남 15개 건설사가 무더기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체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1~10위의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90여 곳의 건설사가 무더기 제재를 받는 초유의 사태다.

해당 건설사들은 안정적 수입원인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면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 불황 속 무더기 제재 =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 열어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과정에서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69개 건설사를 적발,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다. 이 중 광주·전남 건설사는 15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광주·전남 4개 건설사를 포함해 42개사를 적발했다.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공사는 1개사를 각각 적발했다.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총 90여 곳, 광주·전남은 최소 15곳이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최장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시공실적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반발 = 건설업계는 조달청의 부정당업체 결정에 대해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006년 5월 저가심사제 도입 이후 허위서류 제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인데 뒤늦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정당업체까지 받게 되면 문을 닫으려는 애기밖에 안된다고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장 3~9개월간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되면 부도 등 퇴출 위험에 몰리는 곳이 늘어나고 하도급 건설사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며 “100대 건설사 가운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곳이 수두룩해 공공공사 입찰 제한에 따른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는 이같은 후폭풍을 우려해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제재를 수주시장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또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건설사에 대한 제재가 국가계약법 외에도 형법 등 복수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방안을 단순화하고, 부실 건설사 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해 대대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는 “허위 서류 제출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최저가 낙찰제 자체의 폐해도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조업체 체감경기 8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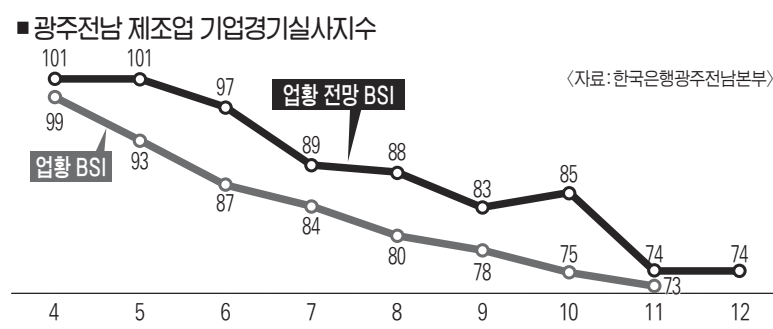
광주·전남 435곳 조사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매출액 20억원 이상 광주·전남지역 43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기업경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3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12월 전망BSI는 74로 전월과 같았다. 업황BSI는 지난 4월 99을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떨어져 지역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업황BSI는 기준치 100보다 클수록 경제 상황이 좋다는 것이고, 100보다 작을수록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매출(92→86)과 생산(96→88), 신규수주(87→83),



가동률(88→87), 재산상(83→72)BSI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반면 제품 재고수준(108→110)과 원자재구입 가격(109→117), 인력사정(88→92)은 상승해 체감경기가 더 악화됐다. 이들 제조업체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17.5%), 원자재가격 상승(15.9%), 불확실한 경제상황(15.6%), 환율(9.8%), 수출 부진(7.5%), 자금 부족(7.3%)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지역 제조업체의 업황전망은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 결과, 다음달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86.1로 전월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1 글로벌 앱 어워드’ 조이알 ‘범퍼피쉬’ 동상

나무소프트 ‘푸시삼국지’ 입상

광주시는 ‘2011 글로벌 앱(App) 어워드’에서 ‘광주 스마트모바일 앱 개발지원센터(GSMAC)’에서 창업한 조이알의 ‘범퍼피쉬(동상)’와 나무소프트의 ‘푸시삼국지(입상)’가 한국의 대표 앱 34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1 글로벌 앱 어워드’는 중소기업청과 KT가 해외 시장성이 높은 앱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펼쳐 왔으며 총 350개 팀, 1000여 명의 앱 개발자들이 참여했다.

수상팀에게는 총 2억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글로벌 사업화 비용 및 진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 11개 분상 수상팀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공동 개최하는 앱마켓 교류 프로젝트 ‘OASIS(One Asia Super Inter-Store)’ 글로벌 앱 어워드의 국내 대표로 참가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GSMAC을 통해 앱 개발자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앱 정보교류와 개발 테스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친 결과 이번 대회에서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는 공간과 장비를 더욱 확대해 창업을 준비하는 앱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앱 개발 중소기업, 앱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까지 지원 사업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범퍼피쉬



푸시삼국지

카드 수수료 항의 2만여명 동맹휴업

전국의 경비업, 부동산중개업, 학원 종사자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30일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해 시민들이 생활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동맹휴업에는 생활필착형 업종뿐 아니라 톨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도 동참한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3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잠충체육관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천만 서민과 직능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연다.

참석대상은 톨살롱, 나이트클럽, 마사지업, 쿠키속관매업, 노래연습장, 경비업, 안경업, 부동산중개업, 서울 시내 학원 등 60개 자영업종 종사자들이다.



29일 'New KIA 아빠는 기아인'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기아차 광주1공장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둘러보고 있다.

“기아차 만드는 아빠 최고”

기아차 광주공장, 임직원 자녀 학급 초청 견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종웅)은 28~29일 이틀간 임직원 자녀 학급을 초청해 공장을 견학한 'New KIA 아빠는 기아인'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기아차 임직원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광주 효덕초, 일곡초, 연제초교 학생 85명을 초청했다. 이

들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했다.

이들은 최근 새롭게 단장한 홍보관에서 기아차 현황 소개와 홍보 동영상 보고, 소울과 카렌스를 생산하는 광주1공장에서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등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일

련의 과정을 둘러봤다.

또 친환경 에너지를 체험하고 직접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에도 도전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참가자들에게 기념 티셔츠와 친환경 학용품 선물하고 공장 인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점심도 대접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유리 양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모습도 보고 직접 태양광 자동차도 만들어 볼 수 있어 즐거웠다”며 “아빠의 일터인 기아자동차가 더욱 발전해 세계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금고은행’ 농협·광주은행 지정

3년간 세입·세출 자금 관리

전남도는 2012년부터 3년간 도의 세입·세출 자금을 관리할 ‘금고은행’으로 농협과 광주은행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제1금고는 농협, 제2금

고는 광주은행을 선정했다.

내년도 본 예산안을 기준으로 제1금고로 지정된 농협은 일반회계 4조 659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3152억원 등 4조9742억원을 맡는다.

제2금고인 광주은행은 5개 특별회계 3761억원과 14개 기금 3144억원 등 6905억원의 자금을 관리한다.

전남도는 이번 금고은행을 선정하면서 현행 고이율 예금금리 체계인 ‘한국은행 발표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도와 금고은행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 출연금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제1금고는 매년 15억 8000만원(3년 47억4000만원), 제2금고는 매년 6억4000만원(3년 19억 2000만원)의 출연금을 내는 등 연간 총 22억2000만원(3년 66억6000만원)의 세외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코스피지수	1856.52 (+41.24)
코스닥지수	492.73 (+6.37)
금리 (국고채 3년)	3.43% (-0.01)
원·달러 환율	1145.40원 (-8.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고프레는의 클럽을 바꾸다

모든룸에 고순도 산소 공기급 공기청정기 설치

김현의 마음골프
골프는 마음의 수련으로 향상된다!

오태훈의 개그골프
이보다 더 재미있는 골프 레슨은 없다!

전욱휴의 스마트골프
분석이 함께하는 전문 골프 레슨의 진수!

제이슨 강의 리얼레슨
세심한 진정성으로 승부한다!

에디조의 베이직골프
체계적인 청석골프 레슨을 지향한다!

5분 레슨이 충분 하시던가요?

이제 자이언트 골프존에서 국내 유명 프로들의 전문 레슨을 한시간 동안 집중과외 받으세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실력별 개인맞춤 레슨

521-0071
www.ggolfzon.com

전욱휴 프로 단독레슨

11월 30일(수) 전욱휴 프로 자이언트 골프존 단독 레슨 예정!!
상세일정은 회원들께 추후 통보

보고 + 듣고 + 따라하기

보고, 듣고, 따라하는 신개념 골프레슨 - 골프존 마이티